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담당 : 공동운영위원장 자개오 성공회 신부 010-5663-7180 공동상황실장 이미현 010-9068-5132)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담당 : itaewon1029official@gmail.com)

제 목 [보도자료] 이태원역 1번 출구 '10.29 기억과 안전의 길' 조성 기자회견

날 짜 2023. 10. 26. (총 7 쪽)

보 도 자 료

“진실과 기억의 힘이 우리를 나아가게 합니다”

10.29 이태원 참사 1주기 맞아 이태원역 1번 출구 참사 현장에

‘10.29 기억과 안전의 길’ 조성을 알리는 기자회견 개최

2023. 10. 26(목) 오전 11시, 이태원역 1번출구 앞

※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참사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가족과 소중한 이들을 잃은 분들에게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부상자들의 쾌유를 비롯해 참혹한 상황을 지켜봐야 했을 생존자들과 시민들의 회복을 기원합니다.

1. 오늘(10/26)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이태원 참사 1주기를 맞아 이태원역 1번 출구 참사 현장에 <10.29 기억과 안전의 길> 조성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2. 유가족, 이태원 지역주민, 시민대책회의는 이태원역 1번 출구가 참사 현장이라는 슬픔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기억과 안전의 공간으로 거듭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에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유가족, 이태원 지역주민들의 논의를 모아 <10.29 기억과 안전의 길>을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이태원역 1번 출구 <10.29 기억과 안전의 길>에는 길의 시작을 알리는 표지목과 참사의 의미를 담아 바닥에 새겨진 문구와, 사진작가 황예지의 작품, 이태원역 1번 출구에 시민들이 남긴 포스트 잇, 이태원 참사를 설명하는 3개의 빌보드로 구성되어 있으며 빌보드의 사진 작품과 시민 포스트잇은 2달에 한번 교체 될 예정입니다.
3. <10.29 기억과 안전의 길>은 권은비 미술가의 디자인으로 이태원역1번 출구가 참사의 현장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기억, 애도하고 진실을 찾는 공간으로서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권은비 작가는 우리 사회가 아직 이태원 참사를 둘러싼 희생자, 구조자, 유가족, 지역 상인, 주민들의 이야기를 제대로 듣고 있지 못하고 있기에 미완성이라는 의미를

부여했다 발언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제정되고 책임있는 사람들이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할 때 비로소 안전한 길로 거듭날 수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이태원역 1번 출구 기록보존 활동가 박이현은 이태원역 1번 출구에 붙여진 시민 추모 메시지들이 사회적 참사를 기억하는 공공기록물서의 의미와 이를 보존하기 위해 정부와 사회의 역할이 중요함을 이야기 했습니다.

4. 기자회견 직후 유가족들과 참가자들은 <10.29 기억과 안전의 길> 빌보드와 바닥 표지석 등 설치물을 보기 위해 골목길을 둘러보고 순서를 마무리했습니다. 참고로 <10.29 기억과 안전의 길>은 지난 23일 용산구 명 명예도로로 지정되어 당일 도로 표지판이 설치되었습니다. 끝.

■ 개요

- 제목: <이태원역 1번 출구 10.29 기억과 안전의 길 조성 기자회견> 진실과 기억의 힘이 우리를 나아가게 합니다.
- 주관 :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회의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 일시 : 2023년 10월 26일(목) 오전 11시
- 장소 : 이태원역 1번 출구 앞
- 사회 : 자캐오 성공회 신부(10.29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피해자관리위원회)
- 순서
 - 묵념
 - 발언1: 이정민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이주영 님의 아버지)
 - 발언2: 권은비 10.29 기억과 안전의 길 미술가
 - 발언3: 이지현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공동운영위원장
 - 발언4: 박이현 이태원역 1번 출구 기록보존 활동가, 문화연대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불임자료1. 이정민 유가족협의회 위원장(이주영님 아버지) 발언문

■ 불임자료2. 권은비 작가 - 이태원역 1번 출구 <10.29 기억과 안전의 길> 소개

■ 불임자료3. 이지현 시민대책회의 공동운영위원장 발언문

■ 불임자료4. 박이현 활동가 발언문

■ 참고자료1. 10.29 기억과 안전의 길 [중간 조성 계획 발표 기자회견 보도자료](#)

■ 참고자료2. 토론회 ‘이태원역 1번출구, 기억과 안전의 길에서 사회적 애도를 말하다’ [자료집](#)

▣ 붙임자료1.

이정민 유가족협의회 위원장(이주영 님 아버지)

소개받은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이정민입니다.

이 곳은 2022년 10월 29일 밤, 즐거운 일상을 보내다가 서울 한복판의 골목에서 하늘의 별이 된 사람들을 기억하기 위한 곳입니다. 또한 앞으로는 더 이상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안전을 다짐하기 위한 곳입니다.

참사 현장 골목은 1주기가 다가오기 까지 미끄럼 방지 목적의 도로 포장 외에 제대로 된 정비 한 번 되지 않았습니다. 기억하고 함께 슬퍼하기 위해 찾아오신 시민분들만이 이 골목을 기억과 애도의 공간으로 유지시켜주셨습니다.

이제는 기억과 애도에 더해 안전의 공간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고자 합니다. 모두가 안전하게 일상을 보낼 수 있는 사회가 되는 것이 저희 유가족이 가장 바라는 것입니다. 이 곳에 거주하고 계신 지역주민분들과 상인분들, 그리고 마음을 함께해주시는 많은 시민분들의 도움을 받아 안전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 걸음 중 한 걸음을 겨우 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걸음이 닫지는 못했습니다. 아직 안전해지지 않았습니다.

진정으로 안전해지기 위해서는,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 필요합니다. 명확한 진상규명 그리고 진정 책임있는 자들에 대한 처벌을 통해 경각심을 바로세워야 모두가 일상을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10.29 기억과 안전의 길은 ‘미완성’ 입니다.

시민 분들이 이 곳에 오셔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고, 슬퍼하고 그리고 함께 해주실 때 그 힘이 희생자들의 명예를 온전히 바로세우고 진상을 규명하는 기둥이 될 것입니다.

그 기둥이 밑받침이 되어 10.29 기억과 안전의 길이 ‘완성’ 될 수 있도록 많은 시민 분들의 관심과 연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붙임자료2.

이태원역 1번 출구 <10.29 기억과 안전의 길> 소개

권은비 미술가

10.29 기억과 안전의 길이 이태원참사이 이후 1년만에 조성되었습니다. 그 1년의 시간동안 이 길을 만드는 과정은 험난한 길을 걷는 것처럼 어려운 과정의 연속이었습니다. 이태원역 1번출구쪽의 표지목은 참사 현장의 기울어진 길을 모티브로 만들어졌습니다. 이태원참사는 한국사회의 현실을 보여주는 거울과 같은 참사입니다. 결국 다시는 이러한 참사가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이 거울앞에 비춰진 우리 스스로에게 달려있다는 메시지를 담고 싶었습니다. 시민들이 이 표지목 앞에서 거울에 반사된 모습을 보며 참사를 생각하고 기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첫번째 표지목이 만들어졌습니다.

참사의 희생자가 많이 발생한 길의 입구에는 **‘우리에게 아직 기억해야 할 이름들이 있습니다’**라는 문구가 바닥에 새겨져있습니다. 아직 이태원참사의 진상규명이 제대로 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문구는 이러한 현재의 상황을 반성하고 앞으로 사회적 과제에 대해 암시하고 있습니다. 희생자들의 이름과 얼굴, 그들의 찬란했던 삶을 기억하고 누구나 이 길에서 안전하고 존엄하게 걸을 수있길 바라는 마음이 담겨있습니다.

참사가 벌어진 길에 들어서면 두번째 표지목이 보입니다. 참사가 벌어진 기울어진 길이 이태원참사의 상징색으로 빛나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바닥에는 사선의 긴 줄이 설치되어있습니다. 이번 10.29 기억과 안전의 길은 기억의 의미를 담기도 했지만 경고의 의미를 담고자 했습니다. 길 위에 그어진 사선의 줄은 안전하지 못한 사회에 보내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길 옆에는 3개의 하얀 빌보드가 설치되었습니다. 이 빌보드는 시민들과 소통하기 위한 창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번째 빌보드에는 이 길이 만들어진 의미가 무엇인지 써있습니다. **‘이 길은 미완성입니다’**라는 문장은 이태원참사가 남긴 과제들을 의미합니다. 창작자로서 미완성의 결과물을 내놓는다는 것은 흔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아직 이태원 참사를 둘러싼 희생자, 구조자, 유가족, 지역 상인, 주민들의 이야기를 제대로 듣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제정되고 책임있는 사람들이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할 때 이 문장은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이 빌보드에는 다국적 희생자들의 언어로 **‘부디, 그날 밤을 기억하는 모두의 오늘이 안녕하기를 바랍니다.’**라는 문구가 적혀있습니다. 한국국적의 희생자뿐만이 아니라 26명의 다국적 희생자 또한 우리가 반드시 잊지않고 기억해야한다는 마음으로 총14개국어의 언어가 적혀있습니다. 하단의 QR코드를 핸드폰으로 비추면 10.29기억과 안전의 길 웹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이 웹페이지에는 현장에는 담지못했던 자세한 내용들을 보실 수있습니다.

두번째 빌보드는 시민들의 참사 이후 이곳에 남겨주신 포스트잇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두번째 빌보드의 가운데에 남겨진 포스트잇은 실재로 이곳에 어떤 시민이 남기고 가신 메세지입니다. '일상적인 공간에서조차 안전을 지켜주지 못해 죄송합니다. 그곳에서 편히 쉬세요.저희는 잊지않고 바뀌가겠습니다.'라는 시민메세지는 참사이후 기억을 실천하겠다는 시민의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세번째 빌보드는 황예지 사진작가의 작품이 전시되어있습니다. 황예지 작가는 이태원에 주민이기도 합니다. 황예지 작가는 '우리 스스로가 아린 밤의 외투가 되어준다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내가 가진 사진 중에 손에 꼽는 찬란한 사진을 보탠다'는 메세지를 주셨습니다. 참사이후 이 길에 방문하기를, 그날을 떠올리기를 주저한 이들에게 이 사진이 추모의 배경이 되길 바란다고 하셨습니다.

3개의 빌보드는 앞으로 2개월 간격으로 다양한 시민들과 예술가들의 이야기가 담겨지고 교체될 예정입니다. '기억한다'라는 것은 결국 기억하고 있다는 상태를 실천하는 과정이기때문에 계속해서 다양한 사람들의 기억의 메세지를 이곳에 앞으로 담아보려합니다.

참사가 일어났던 밤이 되면 여기의 모든 설치물들에 따뜻한 빛이 이 길을 감싸도록 디자인되었습니다.

이 길을 오르면 반대편 길목에도 '10.29 기억과 안전의 길'이 바닥에 한글과 영문으로 새겨져있습니다. 참사 이후 이곳에 오기를 주저하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앞으로 많이 와주시고 이곳에서 희생자들을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태원 참사가 우리 사회에 남겨준 과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 붙임자료3.

이지현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공동운영위원장

이번 <10.29 기억과 안전의 길> 조성은 사랑하는 이들을 떠나보낸 이태원 거리가, 애도와 기억의 공간으로 남기를 바라는 유가족들과 아픈 기억만이 아닌, 희망을 품고 이태원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참사의 생존자이자 목격자, 구조자인 지역주민들이 함께 뜻과 마음을 모아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사회적 참사 이후 참사를 기억하고 추모할 수 있는 공간이, 바로 참사 현장에 만들어진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합니다.

참사가 끝없이 반복되는 사회에서, 기억과 애도를 넘어서 이제는 정말 생명과 안전이 존중되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이 모아진 결과이기도 합니다.

참사의 현장, 그곳에 남겨진 기억은 지워지지 않겠지만, 우리는 이태원이 고통과 슬픔으로만 기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길 조성이 서로를 위로하는 과정이 되고, 희생자들을 기억하면서 재난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모아지는 공간, 전처럼 즐거운 일상을 영위하는 공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이 과정은 어디까지나 중간 과정입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비록 지금은 법사위에서 잠자고 있지만,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참사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뤄질 때,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추모가 가능합니다. 그때까지 시민여러분들도 모두 관심갖고 함께 해주길 바랍니다.

▣ 붙임자료4.

박이현 문화연대 활동가

안녕하세요, 이태원역 1번 출구 앞 기록보존활동 '이태원 기억 담기' 함께 해온 문화연대 박이현 활동가입니다.

그동안 많은 시민들이 이곳 해밀턴호텔 옆 골목 참사현장을 찾아주었습니다. 국가의 부재로 참 많은 사람이 희생되었습니다. 그동안 추모와 애도에 동참하기 위해 시민들은 2만점이 넘는 조화를 비롯해, 십수만장의 추모 포스트잇을 남겨주었습니다. 그 덕에 이곳은 애도의 공간이 될 수 있었습니다.

국가는 참사 이전에도 없었고, 참사 이후에도 없었습니다. 정부는 유가족과 협의도 없이 합동분향소를 차리고 위패나 영정 한 점 걸지 않았습니다. 서울시청 앞 시민분향소를 철거하라며 계고장을 보내고 커다란 변상금을 부과하며 시민들의 애도를 방해하였습니다. 이곳을 기억과 안전의 길로 선포하기까지 자그마치 1년이란 시간이나 허비하였습니다. 시민들이 이토록 많은 메시지를 남기기까지, 이를 보존하기 위해 정부기관들은 거의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국가가 내버려둔 공간에서 시민들은 애도의 정치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서로 어깨를 토닥이며, 이 거리를 청소하고 추모메시지를 수거하며 또 보존하고 있습니다. 10·29 기억과 안전의 길은 유가족과 생존자, 지역 주민 그리고 시민들이 함께 조성한 공간입니다.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애도의 정치 첫 걸음에 10·29 기억과 안전의 길이 있습니다. 참사가 일어난 바로 여기서부터 우리는 나아갈 것입니다. 서로 아픔을 나누고 위로를 건네며, 안전사회를 위한 기틀을 마련해가겠습니다.